

특수 교육에 관한 설명서

제한적이 아닌 자유로운 교육 환경

“자유로운 교육 환경” 이 주어지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

연방및 주 법에 따라, 장애 아이들은 “자유로운 교육 환경(LRE)” 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아이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장애 아이들도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교육 받아야 하며, 보충 학습이나 서비스를 받아도 장애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는 아이가 알맞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일반 교실에서 함께 교육 받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중에는, 만일 장애가 아니라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장애 학생들도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다.

LRE 는 자기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우, 일반 교실 환경에서는 장애 아이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일반 교실에 배정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서라도 장애 아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있는 일반 교실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일 장애 학생이, 주어진 환경, 즉 일반 교실에 배정받아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장애 학생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일반 학생들처럼 그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을 장애 학생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인, 정상적인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개념과 연관이 있으나 다른 개념이다. 포괄적이란 의미는, 주된 교육과 특수 교육 서비스를 (i)일반 교실에 서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ii)학생의 가정에 (iii)학생과 선생에게 추가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라고 해서 장애아이에게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¹포괄적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는 뉴욕 주 교육국에서 작성한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문서에 적혀 있으며 1998년 5월에 개정 하였다. 교육국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은 포괄적이란 개념을 다르게 정의 하지만, 어떤 선택이 아이에게 필요한 가를 이야기할 때, 포괄적이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조적으로, **정상적**이란 말은, 장애 아이에게 필요한 보충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친구들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맞게끔 장애아이가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하지 않고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장애 학생과 정상적인 학생들이 일반 교실이 아니더라도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 교육법에는 **포괄적인, 정상적인, 차별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장애 아이들도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인, 정상적인, 차별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개념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몇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 하다. 일반 교실에서 공부 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

교육국(DOE)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가에 달려있다. 주와 연방법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도와 주는 팀, 특수 교육 위원회(CSE), 또는 통합 서비스 센터(ISC)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환경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보충 교육과 서비스가 필요한 지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적으로 무슨 도움이 필요한 가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지도 관리 한다. 교육국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충 교육이나 서비스 종류로, (1)일대일의 훈련된 조수나, (2)상담 선생(CT), 그리고 특수 교실 [예전에는, 특수 교육 선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SETSS)] 선생들이 학생과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 그룹을 이끌고 가르치거나, 일반 선생들에게 과목을 수정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게끔 도와 주기도 하며, (3)예를 들어 특수 시설이 장착된 컴퓨터등 보조 기계(AT)를 사용 하기도 한다.

주법 또는 연방법에는, 장애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교육국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포괄적인 학습에 필요하여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충 수업이나 서비스 종류에는—예를 들면, 일대일의 훈련된 조수나 상담 선생이며—아이에게 필요한 이런 서비스 요구는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이 거부할 수 없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소수 정원의 교실에서 배운다면?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개인 능력을 평가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 학생을 일반 교실에 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법에는 개개인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과 반 배정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국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반 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반 편성 하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 환경속에서 개개인의 아이에게 가장 알맞다고 결정 하여도 그것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만일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혹은IEP)팀이 아이를 평가한 후, 보충 수업이나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일반적인 반 편성으로는 아이에게 발전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자유로운 교육 환경은 소수 정원의 교실에서 일반 학교 생활과 분리된 가운데 따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팀은, 아이가 보충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일반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과, 특수 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을 서로 비교해야 하며, 정상적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장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공부야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혜택도 있나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첫번째 단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원 팀, 특수 교육 위원회(CSE), 또는 통합 서비스 센터(ISC)에 연락하여 정상적인 반 배정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여라.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끈기를 가지고 또한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여라. 편한 시간에 면담 날짜가 잡혀있지 않을 경우 다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라.

다음 단계는 면담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모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아이가 정상일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일반 교실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다. 첫번째 질문해야 할 것중 하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 들을 -단지 공부가 아닌, 사회 활동과 발달에 필요한 것- 보충 수업과 서비스를 받으며 다니는 학교에서도 일반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만일 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일 경우, 다음 질문은 : *자유로운 교육 환경아래 어디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야 한다.

차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반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교육국에서 일반적인 반 배정을 해 달라는 본인의 요구를 거절했을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특수 교육 위원회(CSE), 또는 통합 서비스 센터(ISC)에 연락해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뉴욕 시 교육국 산하에 있는 Impartial Hearing Office(공청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관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공공 이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 협회에 연락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반 배정을 받아야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공청회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준비 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제시할 수있는 증거로서는 본인 자신의 진술, 아이의 선생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의 진술, 교육 전문가의 평가서나 아이가 현재 치료 받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료에 관련된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반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교육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러한 요구를 교육국에서 거절할 경우,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 “다운 신드롬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훈련된 조수로 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 또는 “자폐증 학생은 일반적인 수업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다.” 라는 등 장애에 관련된 진단을 근거로 한 설명. 교육국과 특수 교육 위원회(CSE)에서는 반드시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관찰해야 한다.
- “아이가 일반 교실에서는 적응할 수 없다.”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학업 성취가 가능한 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반 배정을 받고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을 통해 장애 아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뉴욕의 법원과 행정 당국이 결정 하였다.
- “너무 비싼 보충 수업과 서비스가 아이에게 필요하다” 위 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 문제로 일반적인 반 배정을 안 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을 만들때 무엇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나?

아이가 일반적인 반 배정을 원한다면,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을 준비하는 동안 종종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매우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만들어 아이를 일반적인 반에 배정하겠다고 IEP팀이 결정한다면, 아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학교에 요구하여라. 예를 들면, 아이가 남들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사항들을 서로 상의하여라.

- 학교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 수업에 아이가 전적으로 참가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체적인 장벽이 있나?
- 일반 교사가 장애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나?, 혹은 그 교사가 따로 훈련을 받아야 하나?
- 일반 교사가 교과 과정이나 교육 스타일이 아이에게 맞게 가르칠 수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교사(CT)가 필요 하나?
- 상담 교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 (5)아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나?

아이가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반을 배정 받은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에 만족 한다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도 교장이나 유연성있고 창조적인 선생들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생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 시키도록 초기에 노력해야 하며,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안에 관해서도 그들과 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니는 학교가 속해 있는 특수 교육 위원회(CSE), 또는 통합 서비스 센터(ISC)에 연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조정 심사나 공청회를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 노트 복을 보관하여
 - 전화 통화 내역과 개인 면담 및 만남에 관한 기록을 할 것.
 - 교육국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보관할 것
 - 편지와 봉투를 보관할 것
 - 날짜가 찍혀 있지 않는 서류는, 서류나 봉투 뒷면에 받은 날짜를 기록할 것
- 모든 서류를 동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복사본에 서명과 받은 날짜를 요구할 것
- 항상
 - 교육국에 보낸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할 것
 - 교육국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두고
 - 가능하면, 직위, 사무실, 자세한 연락처를 알아내어
 - 다음에 필요 하므로 기록하여 남겨 둘 것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이 서류를 법률적인 설명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 2009 년